

서남권 종합발전구상 오찬간담회

반갑습니다.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용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서남권 발전 종합구상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자 온 것이고, 하나는 균형발전 사업 중에 중요한 것의 하나인 누리사업을 보고를 받고 함께 토론하기 위해 왔습니다.

누리 사업은 교육부가 하는 사업인데 지방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체로 성과가 있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평가가 있어 확대하고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할 정책입니다. 그런데 평가를 해보니까 목포대학이 누리 사업에서 가장 큰 성과를 냈습니다. 목포대학 총장 이 자리 계신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서남권 종합발전 구상은 며칠 전 서울에서 회의를 하고 정책결정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곳에 와서 정책을 토론하고 마무리짓고 발표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할 경우 오히려 정치적 의심을 하는 경우가 생기고, 정치적인 것 아니냐 의심도 하고 공격도 할 것 같아서, 미리 발표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균형발전은 국가적 전망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과제

지금 가장 기업하기 좋은 조건을 찾는다면, 지금 당장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아직도 모든 조건이 수도권에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 국가발전 전망을 가지고 본다면, 수도권 집중으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방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지방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장기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위해서도, 국가적 차원에서도 균형발전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서울도 계속 과밀이 축적되면 경쟁력도 떨어지고 사람 살기도 불편해집니다.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결국은 서울을 위해서도 지방을 발전시켜 산업도 일으키고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서 우리가 흩어져 살아야 합니다. 균형발전 정책을 참여정부에서 대단히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간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주로 물량 위주의 투자 확대만을 계속 해왔는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질적 발전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경제발전 전략도 혁신주도형 경제로 질적 전환을 해야 하고, 국토의 공간적 관점에서 볼 때도 지역적으로 균형발전을 반드시 해야 하고 아울러 경제 기업뿐 아니라, 정부 행정, 공공부문 모두를 혁신해야 합니다.

균형발전, 혁신, 사회투자가 장기발전의 핵심적 전략

혁신을 활발하게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혁신이 참여정부의 역점과제입니다. 그래서 균형발전, 혁신, 사회투자 이것이 장기발전의 핵심적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은 왜 빠지냐, 성장전략사업은 왜 빠지냐, 일자리도 있지 않냐. 하지만 크게 묶어서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 안

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미 그것은 꾸준히 해왔던 것이죠. 새로운 전략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에 우리는 국가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외환 위기가 단지 외환적 요소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취약했던 경제체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과잉투자가 일어나고 기술혁신은 소홀하고, 경영혁신도 소홀하고, 전체적으로 관치경제 관치금융의 틀 속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경제체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취약했습니다. 97년 외환 위기 이전에 굶직굶직한 기업들이 여러 개 부도가 났지요. 기아자동차가 결정적 계기였습니다만, 그렇게 되었던 것을 국민의 정부시절 외환위기 회복하는 과정에서 대개 다 고쳐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 내려오시면 기업, 공공, 노사, 금융 4대부분 개혁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이 한국경제의 체질을 바꾸는데 혁신이었습니다. 이 제도적 혁신 위에 질적 혁신을 더 쌓아 가자는 것이 참여정부의 전략입니다. 사회투자를 통한 장기발전전략, 균형발전 통한 장기발전 전략, 지속적 혁신을 더해 경쟁력을 높이자는 장기발전 전략을 다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균형발전은 모든 부분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대학교가 지식기반 중심이 되어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데, 대학만 혼자 갈 수 없기 때문에 기업과 연구소, 행정조직 이 모두가 함께 간다는 뜻에서 혁신클러스터 정책을 만들고...

우리의 연구개발 예산은 약 9조 정도입니다. 제가 대통령 되었을 때 27%가 지방에 배정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36% 정도, 그리고 내년에는 44%로 늘어날 것입니다. 획기적인 자원배분의 이동이 있었던 것이지요. 모든 부처 업무 평가에 균형발전 영향평가 다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업이라면 지

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수도권에서 가급적 하지 마라 이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100%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기업도시 2개를 기획해 정부가 승인을 했는데, 다른 지역보다 활력 있게 가고 있습니다. 가끔 보도를 보면 이름만 기업도시고 별 혜택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하는 데 막히는 것이 있으면 그 때 그 때 풀어 드리겠습니다.

30년, 50년 이후를 내다보는 경제성 평가 통해 정부가 투자할 것

경제성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지금 기준으로 하면 될 만한 사업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전보다 환경은 좋아졌지만 그래도 어려울 것입니다. 민간 기업이 스스로 타당성 판단할 것이고, 정부사업도 판단할 것인데, 정부는 적어도 30년 50년 내다보는 타당성 판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연스럽게 지금의 경제흐름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30년, 50년 이후를 내다보면서 거기에 맞는 경제성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정부가 투자를 용기 있게 결정하는 그런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고속전철이 그런 것입니다. 정부 각 기관에서 해보니 호남고속철은 타당성 없다는 겁니다. 이해찬 총리가 끝이곧대로 하는 사람이라 어디 가서 타당성 없다고 말씀하셔서 난리가 났지요. 하지만 이 문제는 미래를 내다보는 관점에서, 미래적 관점에서 판단하고, 정치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정치라는 것은 미래를 봐야 합니다. 일반국민들은 눈앞의 자신의 삶에 충실하면 되지만, 정치는 50년 100년 내다봐야 하는 것이거든요.

서남권 개발은 정치적 관점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투자하고 그 다음에 민간인들이 따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인프라도 차곡차곡 진행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노무현 당신 임기 얼마 안 남지 않았나? 그렇지 않습니다. 호남의 정치적 발언권이 전하고는 다릅니다. 옛날에는 정치적 발언권이 약했지만, 지난 10년 간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정부에서 만든 계획이지만, 오늘부터 이 계획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딱 쥐고, 국가발전을 위해 필요한 국가 장기발전 전략이라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주십시오. 이런 추진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군에서도, 도에서도, 일반국민들도 힘을 모아 주시면 적어도 제가 레일을 깔겠고, 이정표를 확실히 세워 놓겠습니다.

이 지역에도 국회의원들이 많이 계신데, 많은 정치력들이 있으니 그렇게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들도 이 사업이 성공하는데 이끌어 줄 것이고 이것을 대학발전의 계기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무안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목표는 옛날의 그 영광을 되찾는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정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